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V)*

-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IV)*

- Social Adjustment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교수 이기영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영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 과장 민현선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김대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박미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 : Rhee, Kee Choon

Prof. : Lee, Ki-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

Prof. : Rhee, Eun-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Yi, Soon-Hyung

Dept. of Architecture,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Nyun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Prof. : Park, Young-Sook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Assist. Prof. : Choi, Younshil

Institute of Global Marketing, Samsung Electronics Co., Ltd.

Senior Manager : Min, Hyun-Su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Doctoral Student : Park, Miyong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공모과제임.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IV. 남한주민의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태도 V. 결론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ground information to develop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North Korean residents who might migrate into South Korea when free transmigration is allow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First, depth interviews for 1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used to find out their social adjustment realities and problems. In addition, empirical survey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397 subjects to identify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willingness to support them financially and emotionally.

North Korean defectors's social adjustment problems were approached based on lifestyles. The 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difficulties the defectors had experienced at first were mainly in the aspect of consumption caused by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apitalism. However, they could overcome difficulties and assimilate their ways of living to those of South Koreans soon. Other adjustment problems in family living and child rearing especially related with values had more complicated issues.

Results of the empirical survey showed that South Koreans' level of interest in defectors was moderate but they thought them rather positively, sympathetically. Concerning supports, South Koreans were agreeing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more with emotional support than financial support by individuals.

In conclusion, present formal education programs provided to defectors were not effective enough for them to learn South Korean living culture. To learn by living with interactions with South Koreans was one of the best policies to help defectors' adaptation. Findings that South Koreans were willing to help them emotionally matched and balanced with defectors' needs.

I. 서론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에 힘입어 비교적 단기간에 북한 사회의 실정이 남한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들은 이차 자료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이제는 TV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남한 사람들

의 북한사회나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인에 대한 인식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 형식적 구호로, 그리고 요원한 일로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조만간 남북한 자유 왕래가 가능해질 것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남북한 사회통합이 어떤 형태를 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데, 통합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통합 이후의 이질화 극복에 관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분단 상황이 낳은 생

활문화의 이질화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근원적인 요인이 될 것임이 우려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논의는 결코 이념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남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문화의 이질화 극복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통일이 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 후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를 대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은 자유의 신장, 민주주의의 실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2-3년이 지난 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과 통일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특히 실업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통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일 이후 동독지방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만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는 변화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랐는데, 성인과 청소년들과의 집단간 비교에서 대처행동에 있어서는 성인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후유증을 덜 경험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과거의 잔재, 모순의 경험을 비교적 적게 하였고 실업과 같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당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함과 정서적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체 실업자의 67%가 여성이고, 이전보다 탁아시설의 이용 조건이 악화된 것 등,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서 가정과 직업을 양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Betram, 1997).

동독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 상태와 국가정체성 및 독일사회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김혜은·서봉연·이순형, 1999b)에 의하면, 동독 대학생들과 성인들은 통독후 생활에 대해 사적영역에서의 생활만족도가 정치상황과 같은 공적영역에서보다는 더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역시 인근 부모, 친척 등 친족 조직망을 통해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미 구 동독시기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격하게 구별되었고 사적영역, 특히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 긍정이 상당한 완충적 기능을 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의 통일이후에 나타날 주민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견할 수 있으며, 한편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동서독 통일의 예를 통해서 통일 이후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문제를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질화의 정도나 이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부족하나마 가장 근접한 형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진 북한 주민의 탈북이 늘어나면서¹⁾ 이들 탈북인들의 경험을 통해 이질화의 정도와 통합 이후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띄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주민의 적응방안을 강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끌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 이질화 현상을 가정생활 문화의 통합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선행연구(이기춘 외, 1997; 이기춘 외, 1998a;

1)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의 총계가 1999년 7월 6일 현재 1천명을 넘어섰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은 1969년 이전 485명, 1970년대 59명, 1980년대 63명이었고 1990년대 들어 1990년과 1991년 각각 9명, 1992년과 1993년 각각 8명, 1994년 52명, 1995년 41명, 1996년 56명, 1997년 86명, 1998년 72명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합통신뉴스속보, 1999년 7월 6일자).

이은영 외, 1999)의 후속적 성격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남북한 가정생활의 이질화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과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관찰·인식하여 상대문화의 인정과 수용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문화의 통합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탈북 이후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느끼는 남북한간의 이질화나 적응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탈북인들의 적응실태 및 문제점 외에,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방적으로 변화된 남한 주민들의 탈북인에 대한 태도와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의 적응지원 방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적응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고,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현실적 적응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탈북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탈북인 대상 면접조사는 탈북인들이 남

한생활에 적응하는 모습과 적응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남한주민의 설문지 조사는 탈북인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탈북인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탈북인 및 탈북인의 생활적응지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면접조사 :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탈북인이 탈북 이후 남한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면접은 1999년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는 1995년 이후 남한 사회에 귀순한 탈북인 중 성별과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면접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면접은 연구자 3인 이상이 동시에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대체로 2시간 정도였다. 면접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채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설문지조사 : 남한주민의 탈북인 및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태도

20세 이상 서울 거주(수도권 신도시 포함) 성인을 대상으로 탈북인에 대한 태도 및 남북한 사회통

<표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면접대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북한직업	현 직업	결혼여부	귀순일
L씨	여자	만50세	전문학교졸	유치원 원장	음식점 운영	북/현 기혼	1994
G씨	남자	만35세	전문학교졸	중앙당소속 러시아외화별이	사업준비	북 기혼/현 기혼(재혼)	1995
K씨	남자	만39세	대졸	토목설계, 러시아벌목공	북한관련 연구소	북 기혼/현 기혼(재혼)	1995
T씨	남자	만27세	대졸	무직 (졸업 직후 탈북)	대학생	북/현 미혼	1995
P씨	남자	만44세	고졸	식료품 판매	무직	북 사별/현 미혼	1996
J씨	여자	만40세	전문학교졸	화술방송원	무직	북에서 이혼	1996
R씨	여자	만36세	대졸	국가품질감독원	대학원 재학, 생활설계사 연수	북 기혼/현 독신(아들1)	1997
C씨	여자	만60세	고졸	주부	무직	북/현 기혼	1997
D씨	남자	만32세	대졸	공업대학 전임강사	무직	북 기혼/현 독신	1998
H씨	여자	만29세	전문대졸	미장공 (피부미용)	대학생	북/현 미혼	1999

합 이후의 생활적응지원 방안에 대한 태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는 1999년 9월 15일에서 10월 28일 까지 실시되었다. 총 502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중 부실기재분과 최초 표집설계에 비추어 과표집된 20대 여성 표본 중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 39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²⁾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빈 도 (%)
성 별	남 성 185 (46.6)
	여 성 212 (53.4)
결혼지위	미 혼 120 (30.7)
	기 혼 271 (69.3)
연 령	20 대 103 (25.9)
	30 대 104 (26.2)
	40 대 89 (22.4)
	50대 이상 101 (25.4)
학 력	고졸 이하 154 (38.9)
	전문대 졸업 36 (9.1)
	대학재학 중 41 (10.4)
	대학교 졸업 137 (34.6)
대학원 이상 28 (7.1)	
현재 자원봉사 활동 여부	하고 있음 89 (22.4)
	하지 않음 308 (77.6)
북한의 연고자 유무	있 음 41 (10.5)
	없 음 350 (89.5)
직 업	사무·기술직 98 (24.8)
	판매·서비스직 30 (7.6)
	전문·경영관리직 42 (10.6)
	자 영 업 18 (4.6)
	노 무 직 65 (16.5)
	주 부 72 (18.2)
	학 생 57 (14.4)
기 타 13 (3.3)	
월평균 가계총소득	100만원 미만 54 (14.0)
	100-200만원미만 123 (31.8)
	200-300만원미만 121 (31.3)
	300만원 이상 89 (23.0)
생활수준	상 15 (3.9)
	중-상 146 (38.0)
	중-하 170 (44.3)
	하 53 (13.8)

III.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탈북인들은 탈북 이후 일정기간 남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남한생활에 최초로 접하게 된다.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교육 이외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탈북인들의 남한생활 적응은 사실상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스스로 습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탈북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사례를 본보기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적응 실패 사례들이 있음은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경험했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탈북인 1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이들이 주위의 다른 탈북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느낀 간접 경험으로부터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추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탈북인들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를 크게 소비생활, 의·식·주생활, 가족·아동생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 정리하였다.

1. 소비·시간생활

1) 소비생활

탈북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2)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가능한 설문은 441개였다. 이 중 20대 여성이 9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결과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면서, 자료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20대 여성의 설문지 중 무응답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중심으로 제거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20대가 2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20대 여성의 설문지는 총 56개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소비생활로부터 기인하고 있었다³⁾.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인 생활방식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데 비해, 소비생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는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까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경제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화폐 단위의 차이에 따른 혼란이 이들의 소비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해 가면서 화폐단위에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혼란으로 인해 초기에 목돈을 잘못 지출한 데 대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황당한 거예요. 수퍼에 가서 저 물건을 사야겠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말도 못하고, 물건 이름을 몰라서(T씨)”.

“마을 근처 수퍼마켓에서 플라스틱 바케스, 수저, 반찬, 비누 등 10만원 가량을 처음으로 써 봤는데, 1만원까지는 쓴지 비싼지 감각이 없었고, 그 후 감각을 가지는데 2년이 걸렸어요(K씨)”.

탈북인들의 남한생활 초기에는 정부기관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급되는 정착금으로 비교적 유사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비해, 사회 적응과정 중의 소비생활 면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주위의 도움에 의해 서로 상이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비생활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에는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착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적응방식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식료품이 매우 귀한 북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식품을 너무 많이 사서 제대로 처분도 하지 못하고 썩어 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T씨)”.

“처음에 한번 가서 보고 사왔는데, 돌아다녀 보니 이쁜 것이 더 많아서 후회했어요. 북한의 습성이

있어 라면, 쌀 등도 대량으로 구매했지요(H씨)”

경제구조나 화폐단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소한 구매방식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가족 중에 주부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행동보다 훨씬 근본적인 부분인 화폐단위나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었다. 북한에서의 월급이나 일상생활용품 가격과 일일이 대비해 보아야 비로소 가격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고, 그나마도 북한에서와는 너무 차이가 많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에는 상품의 가격에 비해 10만원 정도면 비싸구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요새는 2천원짜리라도 선뜻 사기보다 가치를 따져 봐요. 북한에서는 물건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취향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K씨)”.

또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기,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와 타인 관찰, 모방 등을 통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기기의 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남한사회에서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은행은 가서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해요. 신용카드는 갖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절대 신용카드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더라고요(T씨)”.

“저는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카드를 해 주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으면 차라리 없는 걸로 생활을 하지(H씨)”.

3) 탈북인에 대한 1998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남북한 가정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영역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식생활, 소비생활, 주거생활, 의생활, 시간생활, 아동생활, 가족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이기춘 외, 1998b).

이들 탈북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비생활에의 적응은, 초기에는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담당 경찰관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경험을 통한 체득이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생활 방식을 관찰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생활방식을 터득해 나가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가장 절실하다.

2) 시간생활

탈북인들은 일상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시간생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이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간관리를 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할 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들이 시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적응모습은, 북한에서보다 훨씬 바빠졌다는 경우, 특별한 소일거리 없이 집에서 지낸다는 경우, 그리고 탈북인들과의 만남이 여가 시간의 주를 이룬다는 경우 등이었다.

북한에서도 바빠지만 남한에 와서는 더욱 바빠데,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므로 돈 벌 궁리를 하느라 다른 시간적 여유를 느낄 겨를이 없다는 탈북인들이 있었다.

“남한에 와서 학교의 강연, 원고청탁, 일자리 알아보는 것 등으로 바빠서 얘기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L씨)”.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만큼 바쁘지 않은데, 남한은 모든 것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어요(K씨)”.

이렇게 바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시간의 여유가 생길 경우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직까지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식의 ‘즐길 수 있는 여가’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

해 갈수록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이 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여가를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가 이들에게 없어서 욕구와는 달리 실제로는 별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여가생활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여유가 있으면 조그만 배낭을 메고 다니고 싶어요. 차를 타고 좋은 데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음식도 해 먹고 싶어요(R씨)”.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정해서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가도 좋은지 몰랐는데, 인식이 바뀐 후로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더라구요(K씨)”.

“여가시간을 잘 즐기기 위해 자동차를 갖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어요. 과거에는 삶에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이 강해졌어요(G씨)”.

“열심히 일해서 팍팍 쓰는 게 참 이상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일요일 같은 때는 강에 나가서 빨래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여가시간을 못 쓰게 하잖아요. 여기는 열심히 벌어서 팍팍 쓰는데 참 재미있을 거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쓴다는 게(H씨)”.

그렇지만 일부는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가문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상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북에서 온 사람은 과다소비지향이거나 여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R씨)”.

이 외에 탈북인들은 시간이 나면 탈북인들끼리의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13명 정도가 만나서 친목 도모나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생활적응에 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 L씨와 같이 남한 사회에 하루 빨리 동화하기 위해 이웃과 친해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탈북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웃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집에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 북쪽 음식을 대접합니다(L씨)”.

개인의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체계에 익숙한 탈북인에게 시간이란 인간이 자유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탈북인들과 남한 주민이 함께 동호인 모임을 구성하도록 하여 각자의 취향이나 적성에 맞추어 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남한 사회에의 적응을 촉진할 것이다.

2. 의·식·주생활

1) 의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생활 측면에서의 탈북인의 적응 어려움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졌다.

우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의생활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외모의 차이, 의복 선택의 어려움, 세탁방법의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탈북인은 남한 사회에서 탈북인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외모상 차이를 보이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옷차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한인에 비해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소외감이 생겨나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여긴다. 또한, 외모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생활에 찌든 때가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억눌리고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K씨)”.

외모에 있어서 남한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 어울리는 적절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탈북인은 남한에서 옷

을 골라 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의복을 선택하는데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쉽게 동화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품목에 비해 의복 구매를 더욱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특히 색상이나 패션 감각에 있어 남한사람들과 차이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탈북인들이 정착 초기에 산 옷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입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특히 남한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입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 교육기관에서 데리고 나가서 남대문 시장에서 그저 입혀 보고 맞는다 하면 입혔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그걸 못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쟁쟁해서 못 입으니까... 그리고 속옷도 한 두벌 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사야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색깔을 못 맞춰요(T씨)”.

“항상 옷 사려고 하면, 이 쪽 사람들은 북한하고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입는 옷하고 아줌마 옷하고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아가씨는 다 정장을 입는데, 여기서는 그런 옷은 아줌마 옷 파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H씨)”.

의복과 관련해서 공통되게 이야기되는 또 한가지는, 영어의 사용이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한에 정착하여 살면서 결혼한 남성은 부인이 골라주는 옷을 입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잘 적응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른 탈북인들이 아직도 북한식의 의복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련되지 못하고, 검정색을 많이 입으며, 특히 색채 선택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 외에 가족이 함께 탈북한 경우에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이커 제품을 원하는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탈북인들은 의복 선택 시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

이 아니라, 옷을 세탁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탈북 초기에 세탁을 잘못해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된 경험을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다. 세탁의 어려움은 세탁기, 세탁 표시, 옷감, 세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탁기 작동방법이 어려워 설명서를 보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기 사용에 문제를 경험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옷에 붙어 있는 영어나 그림의 표기가 이해되지 않으며, 직물이나 섬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세탁물을 구분해서 빨래하지 않으며, 검정과 같이 짙은 색을 구분해서 세탁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적음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탁시 세제 정도만 사용하지 그밖에 표백제나 유연제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드라이 클리닝도 직물이나 섬유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비싼 옷이나 남편 옷은 드라이클리닝에 맡기는 식이었다.

“흰 옷을 샀는데 식사를 하다가 양념물이 떨어져서 시뻘건 물이 들었어요. 그거를 세탁하다가 안 지워져 가지고 수피에 갔는데 락스 있잖아요, 그거를 산 거예요. 보니까 그게 표백제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옷을 담근 거예요. 옷을 담그니까 색깔이 몽땅 탈색돼요(T씨)”.

2) 식생활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탈북인들의 식생활 영역에서의 적응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비해 풍부한 식품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경험했던 결핍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남한에 이주한 이후의 식생활 면에서의 적응상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탈북인들은 남한의 풍요로운 식품에 매료되어 북한에서는 귀하지만 먹어 본 적은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 주로 동물성 식품과 과일 등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절약하기 위해 식품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한에서

처음 실컷 먹었던 음식으로는 육류나 계란, 사과 등이 가장 많았는데, 인터뷰한 탈북인 10명 중 3명이 돼지고기를 먹었고 1명은 전골식 불고기를 먹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와는 맛의 차이가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남한에 가면 사탕, 과자, 고기를 실컷 먹어보리라 했으나 막상 여기 와서는 계속되는 위병으로 잘 먹지 못하고 있어요(K씨)”.

“계란을 바케츠로 사서 먹고 싶었으나 가족이 막상 20개 삶아 먹고 나서는 질렸어요(H씨)”.

그런데 탈북인들은 새로운 식품이나 음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하려 하지 않으며, 북한에서의 식성에 대한 향수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새로운 음식은 알리고 하지 않고 주로 북한에서의 방식대로 음식 만들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보신탕을 사 올 때는 양념을 따로 받아 와서 북한 방식대로 양념을 해서 먹으며, 미역국을 쌀뜨물에 볶다가 깨기름(들깨)을 띄워 먹는다면서 참기름은 냄새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남북간의 식품 재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북한에서는 다섯짝이란 산나물을 먹었는데, 남한 시장에서 찾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했어요(L씨)”.

탈북인들의 식생활 적응상의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탈북인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표시를 통해 정보를 얻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⁴⁾, 읽으려고 시도조차 않고, 대충 식품을 들여다 보거나 앞면의 큰 글씨만 보고 구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층에서는 매우

4) 탈북인들이 남한에서 경험한 식생활의 차이는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기인한다는 1998년의 조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대상자인 157명의 탈북인들이 지적한 이해하지 못할 용어는 서양식품명이나 음식명(48.7%), 우리 식품명이나 음식명(2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셀프서비스나 뷔페, 립살롱 등의 영어용어(5.1%)가 지적되었다(박영숙 외, 1999).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지의 광고를 보고 무상으로 지원되는 분유를 공급받아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R씨)”.

이들이 북한에서의 식생활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식생활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독거하는 탈북인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식생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반찬 한 두 가지에 파, 마늘, 식초, 기름의 간단한 양념이었으며 밀반찬이라는 것이 없었고 김치도 겨울에만 먹고 여름에는 무 절인 김치를 먹었으며 채소 중심의 식생활이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여러 식품 재료를 사용하며 반찬 가지 수도 많아지고 항상 밀반찬을 준비하거나 사철 김치를 먹으며 육류 중심의 식생활로 변화하였다. 그밖에 북한에서는 양위주의 식생활이었으나 남한에서는 고급 품질, 잘 만들어진 음식,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식사량 감소 및 물 종류(음료, 커피, 차 등)를 많이 마시게 된 점도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인의 남한 식생활은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음식 같은 것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야 입맛이 나지요. 혼자 먹고 싶지를 않아서요. 안 먹고 그냥 있는 것이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나가서 사먹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혼자서 매식할 수도 없어서 아침에는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하고...(D씨)”.

3) 주생활

의생활이나 식생활 외에 탈북인들의 주생활 적응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정착 단계의 주거지 선정, 주거소유에 대한 의식, 주거설비의 사용이나 부담 등으로 집약된다.

탈북인의 주거생활 적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이다.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초기 주거마련은 정부의 탈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탈북

인들은 정부에서 지급 받은 정착금(1997년 기준, 탈북인 1인당 1500만원) 중에서 600-900만원의 보증금과 입주관련 제반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불한 영구임대아파트(13-25평)에서 거주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남한 친척의 도움으로 구입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J씨)와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압류 당하고 셋방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탈북인들의 초기 정착 모습을 보면, 대부분 서울의 몇 개 지역과 인천 등지에서 한 동네 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적게는 4명, 많게는 70여명 정도가 모여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함께 모여 살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탈북인 집단거주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서로 만나 북한식으로 살면 남한사회 적응에 방해가 되고 말이 많아져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며, 다른 사람의 강연 횟수나 강연료에 대해서 시기, 불평하고, 돈 관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다고 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점은 상호간에 생활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시기나 비방이 잦아져서 불화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집단 거주시 이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많음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탈북인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남한 사람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받기 쉽고, 남한의 생활관습을 보고 익힐 수 있어서 적응을 빠르게 하는 촉진요소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인들은 한 동네에서 산다는 개념이 북한과 달라서 남한의 일상생활이나 자녀교육 방법을 이웃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해도 기회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의 집단주거 유형에서 생활해 왔던 탈북인에게에 이해하기 힘든 이웃관계라고 생각된다.

“북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변소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웃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남한에서는 옆 집에 누가 살고 집을 어떻게 꾸리고 사는 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R씨)”.

정착 초기에 유사한 주거생활을 경험한 탈북인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주거생활 적응 모습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에서부터 정착금 관리능력, 남한 거주기간, 자녀유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그 중에는 개인의 주택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 사회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남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가 있다.

“영구임대라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P, H, R씨)”.

“자기 집이 있으면 좋겠지요. 임대 주택이니까 임시적인 관심이 많이 서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임대 주택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참 알잡아 보는 감이 있더라구요. 한국 사람들은 집이 자기 집인가 그것부터 물어 보잖아요. 그런 게 참 싫더라구요(H씨)”.

이와는 반대로 주택 소유가 중요시되는 남한 사회의 주거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응하는 경우와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주택소유 자체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임대주택은 북한의 국가소유 주택이라는 기분이 들어 내 집을 갖고 싶어요(G, T씨)”.

“애들 결혼할 때 집을 사 주려고 차세대통장을 만들었어요(L씨)”.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야겠지만 주택 소유와 임대 중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는 쪽을 선택하겠어요(K씨)”.

주거설비와 관련된 어려움을 털어놓은 탈북인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에서 경험한 주거 상황에 비해서 주거설비의 수준이 높다는데 연유한다.⁵⁾ 즉, 냉온수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난방이 잘 되고 간편하며 가스와 전기설비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탈북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적게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주거설비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북한에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두려움과 불편함, 처음 사용해 보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많고 사용방법

이 다양하다는 것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가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밤새도록 가스를 틀어 놓은 적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I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설명서를 이해할 수 없어서 곤란했어요(J씨)”.

탈북인들이 주거설비의 사용에 적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스, 전기, 물의 사용료(월 3-7만원)가 너무 비싸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에 차등 부과되며, 매달 입차료(9-14만원)를 내야 하는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어려웠던 편이었으나 사회제도의 차이에 연유한 이러한 문제도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탈북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탈북인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서 생활하는 주거형태가 남한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가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스스로가 남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남한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 사람들과 탈북인간의 주거지 분리가 남한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가족·이동생활

1) 가족생활

탈북인들이 남한생활에서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탈북단위로, 탈북할 때 가족과 함께였는가 아니면 단신이었는가가 이후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신의 경우, 북한에서 기혼자였는지 미혼자였는 지의 여부와, 남한에서의 결혼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단위로

5) 급배수, 난방, 화장실 등 주거설비(44.9%), 주거의 의미(18.4%), 주택의 매매와 소유(10.8%), 주택가격, 전세나 월세, 관리비 등의 주거관련 비용(6.3%)에서 탈북인이 남북한간 주거생활의 이질성을 인식하고 있었음(김대년 외, 1999)을 규명한 1998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탈북한 경우, 단신으로 온 경우에도 미혼이거나 남한에서 결혼한 경우가 적응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가족생활의 문제는 크게 탈북인 가족의 부부문제, 재혼하지 않은 탈북 기혼자의 문제, 재혼한 탈북 기혼자의 문제, 단신 탈북인의 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탈북인 가족의 부부문제로서는 남북한간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로, 남성 우위적인 북한에 비해 남한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탈북인 가정에서 부부가 주로 싸우게 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서 온 여자들은 여기 남한 여자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아직까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싸우는 걸 많이 보았다(C씨)”.

“북한에서는 남편에게 눈을 내리깔고 살았는데, 남한에 와 보니 부인들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다(J씨)”.

“북한은 봉건유교적이라 북한에 있을 때 여자라면 무조건 남자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옳건 그르건 간에 대답이라는 것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런 경우에도 큰 소리를 낸다고 남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여기 와서 죽게 됐다고 그래요(L씨)”.

“남한에 와서 부부싸움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부부싸움이 크게 금전적인 데서 오는 것 같아요(L씨)”.

한편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남한에는 배우자와 함께 오지 못하고 재혼하지 않은 탈북 기혼자의 경우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 때문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죄책감,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의 불확실성, 그리움, 현실적인 고독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을 지닌 경우로서, 남쪽에 와서 보상심리로 경제적인 치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으니까 북한의 가족한테 제가 그 연좌제에 의한 죄책감을 떨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일되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보상을 원하든 아니든 간에 제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K씨)”.

C씨(남)는 처자와 함께 탈북했는데, 처자는 중국에 남고 혼자만 남한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언제 다시 처자와 재회할 지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현실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여성인 J씨는 남편과의 애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이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편의 승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탈북한 경우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남한에서 다시 결혼한 경우 북한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막연하고 착잡한 상태이다. 즉 감정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 애매하고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이나 상속, 호적 정리 등 법적인 사안 및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이나 교육 측면에서의 대처도 요구될 것이다.

“처를 다시 만나면 너도 이해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막연한 추상 밖에 없고...(K씨)”.

이처럼 기혼자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는 달리 단신으로 탈북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중 남성 단신 탈북자의 경우 성적 욕구 해소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유흥가에 출입하는 등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를 해 보았으나 심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생활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경우(K씨)도 있었다.

“사회에 대한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은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북한에 대한 애착을 갖고 비디오 녹화도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K씨)”.

2) 아동생활

탈북인들은 초기에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관계와 관련되어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적응문제는 특히 자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아내와 아들을 북한에 두고 온 K씨는 아들을 주려고 장난감과 옷가지를 사다 몇 상자씩 쌓아 놓았다고 했다. 북한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썼으나 소용이 없자, 아들과 대화를 위해서 빈 종이에 매일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길을 가다가 아들 나이 또래를 보면 손을 잡고 돈을 집어주기도 한다고 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아들 아이에게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탈북인의 생활적응 문제는 자녀양육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인 모임에서도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 주 화제가 될 정도로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자녀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일치한다.⁶⁾

“우리 아기를 잘 키우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예요(R씨)”.

자녀 양육의 면에서 볼 때, 이들 탈북인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와 관련되어 인식되고 있다.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탈북한 여성은 가장 심각한 적응 문제가 아기 양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에 가든 직장에 가든 아기를 맡길 데가 문제더라고요. 한 동안 친정 어머니가 보아 주셨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애기는 여기 와서 7개월이 되자 젖을 뗐으니까... 이유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우유 문제더라고요(R씨)”.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내용이 바뀐다. 초등학교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와의 생활상의 적응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자녀 양육비 문제, 자녀 지도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진로선택의 가치관 차이 문제 등이 있었다.

북한 사회와 달라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이 개방된 남한 사회에서 탈북인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녀는 남한 청소년들과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북한에서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서 갈등이 발생한다. 탈북인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사귀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도 아동, 청소년이나 부모들에게는 안타까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애들은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학원공부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시간을 다채롭게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학원만 끝나면 나와 가지고 온테를 돌아다니더라고요(L씨)”.

북한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남한의 청소년 문화를 보면서 쉽게 빠져든다. 탈북 부모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남한 청소년의 대중문화를 자녀들이 동조하고 어느새 그들의 무리가 된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부유한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자리잡은 J씨는 중학교 다니던 아들과 여러 차례 갈등관계에 놓이곤 했다.

“아들이 남한 아이들이 한다는 거는 다 했어요. 개가 힘팍 바지를 입잖아요. 가위로 열두번 잘라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서 입는지 몰라요. 또 입고 또 입고 그러는 거예요. 니가 그렇게 하면 부모욕 먹힌다고 그래서인지 빨간머리 하거나 그런 건

6) 탈북인들은 남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을 지나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학원, 과외학습 등 사교육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 북한의 아동들은 부모가 남한의 부모들보다 잘못해 주어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데 반해 남한의 아동들은 과잉보호로 그렇지 못하다고 힐책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순형 외, 1999).

없는데, 바지를 그렇게 입더라구요. 그리고 옷을 다 크게만 입는 거예요...(J씨)".

청소년의 또래 문화에 끼이지 못하는 자녀가 소외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겪었다는 데에서 더 심각한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전철을 타고 오가면서 시간을 보낸 아들의 처지를 뒤늦게 알고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의가 왕따 그 정도죠. 애들이 놀아 안주는 거예요. 두 아이를 한 반에 넣었더니, 우리 큰 아이는 가방만 메고 기차놀이 다니는 거예요.(L씨)".

그 외에도 성장한 아이들의 진로를 가늠할 때 부모와 자녀 세대간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에서였다면 당연히 부친의 말을 따라야겠지만 남한에서는 자녀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부모 자녀간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탈북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가 커져서 그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솔직히 성분 때문에, 모든 것,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 부모 말 따라요. 부모가 자기 능력껏, 또 자기 성분 따라서 코드를 해 주니까. 그렇지만 여기 아이들은 자기가 하겠다는 주장 많이 세우잖아요(H씨)".

"남편은 맡아들 학교로 여기에서 연세대 전자기계 공학부를 보내고 싶어했어요. 근데 애는 지가 그것보다도 자신 있는 것을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개는 노어노문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러시아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제 러시아어 배워서 무엇하겠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L씨)".

탈북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사회를 선물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 자유가 경쟁 사회에서 성취를 요구한다는 사실 속에서 걱정을 한다. 그 와중에서 자녀들이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IV. 남한주민의 탈북인 및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태도

탈북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남한 주민들의 지원태도라고 할 수 있다. 탈북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남한사회의 생활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남한 주민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탈북인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 외에 남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남한 주민들이 탈북인과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탈북인에 대한 태도

1) 탈북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설문에 응한 남한 주민들이 탈북인에 대해 가지는 관심 수준은 평균 2.48점으로(중앙값 2.5점), 관심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기본적으로 남한주민들은 탈북인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 탈북인들은 용기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은 가지고 있었다. 또한 탈북인이 북한 사회에서 개인적 문제가 있었고, 남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응답자보다는 부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탈북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3).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인에 대한 태도

남한주민의 탈북인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탈북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

〈표 3〉 남북주민의 탈북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빈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분산)
1. 탈북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	28 (7.1)	150 (37.9)	201 (50.8)	17 (4.3)	2.48 (0.48)
2. 탈북인은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92 (23.5)	225 (57.4)	67 (17.1)	8 (2.0)	3.02 (0.48)
3. 탈북인에 대해 동정심이나 연민을 가지고 있다	28 (7.1)	223 (56.5)	128 (32.4)	16 (4.1)	2.67 (0.45)
4. 탈북인은 북한 사회에서 개인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13 (3.3)	153 (38.9)	180 (45.8)	47 (12.0)	2.34 (0.53)
5. 탈북인은 남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9 (2.3)	140 (36.0)	203 (52.2)	37 (9.5)	2.31 (0.45)

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탈북인에 대한 관심 수준에 있어 연령, 자원봉사 활동 여부, 북한 연고자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과 현재 자원봉사 활동 중인 집단, 그리고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탈북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탈북인은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탈북인에 대해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탈북인이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연령, 결혼지위, 북한 연고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에 있어서는 20대에 비해 그 이상의 연령층이, 결혼지위 별로는 미혼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북한 주민이나 탈북인에 대해서도 덜 폐쇄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일 통일 이후 나이가 든 성인에 비해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일의 후유증을 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Betram, 1997)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특기할 만한 점은, 고령

층이 젊은 층에 비해 탈북인에 대해 관심은 많으면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의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이 최근과 같은 개방성보다는 폐쇄성과 부정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탈북인들이 귀순 이후 남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관적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과 중상인 집단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한 사회의 중상층 이상 탈북인에 대해 배타적 내지 방어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표 4).

2.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태도

1)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

탈북인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생활적응지원과 관련해서는, 남한 정부에서 탈북인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찬성, 평균 2.74점(중앙값 2.5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처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본인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는 평균 2.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는 중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인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	집 단	탈북인에 관심이 있음		용기있고 적극적인 사람		탈북인에 동정심과 연민		탈북인은 문제 있던 사람		남한사회에서 문제의 가능성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성 별	남 자	185	2.48	183	2.95	183	2.69	183	2.36	182	2.36
	여 자	211	2.47	209	3.08	212	2.63	210	2.30	207	2.26
	t-값		.10		-1.89		.92		.77		1.42
연 령	20 대	103	2.36	103	3.04	103	2.65	103	2.14	103	2.23
	30 대	103	2.39	104	3.02	104	2.76	103	2.35	104	2.33
	40 대	89	2.61	85	3.04	88	2.65	86	2.46	86	2.26
	50대이상	101	2.56	100	2.97	100	2.58	101	2.39	96	2.40
	F값		3.39*		.27		1.41		3.58*		1.28
결혼지위	미 혼	120	2.41	120	3.05	120	2.71	120	2.15	120	2.25
	기 혼	270	2.48	266	3.00	169	2.64	267	2.41	263	2.33
	t-값		-.97		.59		1.01		-3.16**		-1.01
종 교	기독교	96	2.61	94	3.13	96	2.71	95	2.42	93	2.20
	천주교	67	2.35	66	2.96	68	2.72	67	2.19	67	2.38
	불 교	84	2.45	84	3.05	84	2.59	84	2.30	83	2.31
	유 교	5	2.20	5	2.60	4	2.50	5	2.00	4	2.00
	없 음	136	2.46	135	2.99	135	2.66	134	2.35	134	2.34
	기 타	5	2.40	5	2.80	5	2.80	5	2.60	5	2.20
F값		1.39		1.17		.49		1.14		.91	
학 령	고졸이하	153	2.50	152	2.94	152	2.61	151	2.37	149	2.26
	대학재학	41	2.46	41	3.24	41	2.80	41	2.12	41	2.41
	대졸이상	201	2.46	198	3.03	201	2.67	200	2.35	198	2.32
	F 값		.16		2.99		1.28		2.02		.82
현재자원 봉사활동 여부	하지 않음	307	2.43	303	3.02	306	2.63	305	2.31	301	2.28
	하고 있음	89	2.62	89	3.01	89	2.76	88	2.42	88	2.39
	t-값		-2.42*		.17		-1.53		-1.18		-1.26
북한의 연고자유무	있 음	41	2.68	41	3.12	41	2.85	41	2.63	39	2.41
	없 음	349	2.45	345	3.01	348	2.64	346	2.30	344	2.30
	t-값		2.07*		.98		1.88		3.15**		.95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54	2.50	52	3.19	52	2.61	52	2.40	53	2.20
	100-200만원	122	2.46	121	2.94	123	2.60	122	2.27	122	2.30
	200-300만원	121	2.46	121	3.05	121	2.66	121	2.33	118	2.28
	300만원이상	89	2.46	88	2.96	89	2.75	88	2.36	87	2.40
	F값		.04		1.87		.98		.44		.99
주관적 생활수준	상	15	2.66	15	2.93	15	2.93	14	2.21	13	2.69
	중 상	146	2.49	144	3.00	146	2.70	145	2.25	145	2.40
	중 하	169	2.43	169	3.03	170	2.63	170	2.38	167	2.22
	하	38	2.44	38	3.10	38	2.50	37	2.32	38	2.23
	F값		.66		.34		2.02		1.01		3.68*

*p < .05 ** < .01 *** < .001

〈표 5〉 남한주민의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

	빈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분산)
1. 탈북인들을 남한 정부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46 (11.6)	220 (55.6)	113 (28.5)	17 (4.3)	2.74 (0.51)
2. 탈북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나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9 (2.3)	157 (39.9)	195 (49.6)	32 (8.1)	2.36 (0.44)
3. 탈북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되어 주겠다	46 (11.7)	270 (68.7)	65 (16.5)	12 (3.1)	2.89 (0.39)

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반반 정도였던 것과는 달리, 탈북인들에게 친구나 이웃으로 정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답했고, 평균 2.89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남한 주민들은 탈북인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차원의 주도로 심화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 위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5).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태도

탈북인의 생활적응지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연령, 학력, 북한 연고자 유무,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인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남한 주민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외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반면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탈북인에게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데에는 연령, 학력, 자원봉사활동 여부, 북한 연고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40대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학재학생

이 대졸이상의 학력층에 비해 친구나 이웃이 되는 데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 중인 활동 중인 사람과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탈북인의 친구나 이웃이 되겠다는 데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대체로 젊은 사람과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적응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들 집단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다(표 6).

V. 결론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당면하게 될 북한 주민의 생활적응 문제를 예측해 보고, 바람직한 생활문화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대로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탈북인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적응실태 및 문제를 파악했고, 이와 더불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남한 주민들이 탈북인과 탈북인 생활적응 지원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탈북인들의 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탈북인들은 귀순 이후 정부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을 받은 뒤 남한 사회에서의 일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은 남북간 이념 및 생활문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독립변수	집 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내가 물질적 도움 주겠음		탈북인의 친구나 이웃이 되겠음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빈 도	평 균
성 별	남 자	184	2.78	183	2.33	183	2.89
	여 자	212	2.71	210	2.38	210	2.88
	t-값		.398		-.69		.16
연 령	20 대	103	2.79	103	2.33	103	2.96
	30 대	104	2.75	104	2.24	103	2.73
	40 대	88	2.72	86	2.46	87	3.00
	50대이상	101	2.69	100	2.43	100	2.88
	F값		.39		2.26		3.42*
결혼지위	미 혼	12	2.83	120	2.30	120	2.89
	기 혼	270	2.71	267	2.38	267	2.88
	t-값		1.52		-1.06		.16
종 교	기독교	96	2.84	94	2.45	94	3.00
	천주교	68	2.72	68	2.22	68	2.75
	불 교	84	2.66	83	2.39	83	2.95
	유 교	5	2.60	5	2.20	5	3.20
	없 음	135	2.75	135	2.33	135	2.83
	기 타	5	2.80	5	2.60	5	2.80
F값		.64		1.29		1.91	
학 력	고졸이하	153	2.69	151	2.39	152	2.98
	대학재학	41	2.87	41	2.36	41	3.12
	대졸이상	201	2.75	200	2.26	199	2.77
	F값		1.14		.62		7.77***
현재 자원봉사 활동여부	하지 않음	307	2.74	305	2.34	305	2.84
	하고 있음	89	2.75	88	2.44	88	3.05
	t-값		-.11		-1.17		-2.60*
북한의 연고자유무	있 음	41	2.97	40	2.52	41	3.09
	없 음	349	2.71	348	2.34	347	2.86
	t-값		2.70**		1.75		2.22*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53	2.64	53	2.35	53	3.01
	100-200만원	123	2.74	122	2.44	122	2.94
	200-300만원	121	2.75	121	2.33	121	2.81
	300만원이상	89	2.78	87	2.25	87	2.81
	F값		.48		1.46		1.94
주관적 생활수준	상	15	2.60	15	2.33	15	2.46
	중 상	146	2.71	146	2.32	145	2.86
	중 하	170	2.74	168	2.35	169	2.92
	하	38	2.80	37	2.37	37	2.91
	F값		.51		.08		2.54

*p < .05 ** < .01 *** < .001

화 차이에서 오는 극심한 혼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 등이 이들 탈북인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얼마나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가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탈북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수개월에 걸친 교육을 통해 실제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익히기에는 미흡한 점⁷⁾이 많다는 사실이다. 탈북인들이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질화의 정도가 심각한 생활문화에 어떻게 새롭게 동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런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둘째, 탈북인들은 생활영역에 따라, 또는 귀순단위에 따라 어려움의 강도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다. 탈북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기본 경제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소비생활 적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의·식·주생활 영역에서는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비교적 쉽게 익숙해지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의생활 같은 경우 이들 스스로가 남한 사회와 남한 주민들에 융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상 생활 적응과는 달리, 가족이나 아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에서부터 연유하는 또 다른 측면을 안고 있었다. 특히 탈북인들의 귀순 단위가 가족 단위인 경우 가족 생활이 아닌 타 생활영역에서의 적응 속도도 매우 빨랐던데 비해, 단신으로 귀순한 경우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 뿐 아니라 다른 일상 생활에서의 적응에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로 귀순한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북한 사회에서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피상적인 적응교육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탈북인들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는 부정

적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남한 주민의 탈북인에 대한 태도는 그리 적극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탈북인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남한 주민의 탈북인에 대한 인식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큰 거부감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관심수준이 낮아지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심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탈북인들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한 주민의 탈북인 생활적응지원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정부 차원과 개인 차원의 지원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탈북인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물질적 지원과는 달리 탈북인들과 이웃이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띄고 있었다. 그런데 대체로 중산층 내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탈북인의 생활적응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지원방안 마련시 어려움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7) 급증하는 탈북인에 대한 효율적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탈북인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이 1999년 7월 개원하였다. 그동안 탈북귀순자 교육을 정보기관 등에서 약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교육을 포함해 3~6개월에 걸친 사회적응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문화일보 1999년 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1999년 7월 8일자).

마지막으로, 탈북인의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인에 대한 면접조사였지만, 연구 결과 나타난 바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같은 교육이 남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터득하고 익혀 가기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으로,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사항이다. 탈북인들은 결국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어가면서 스스로 체득할 수 밖에 없음을 토로했는데, 이는 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조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 실천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만이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커다란 실패 없이 새로운 생활문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주장한다. 더욱이 남한 주민 역시 개인차원에서 물질적 지원을 통해 탈북인의 생활적응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정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탈북인들이 원하는 생활적응지원 방식과 남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원방식이 적절히 조화될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남한 사회의 실제 생활모습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들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주위의 지원을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회통합 이후의 생활적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남북 사회통합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적응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대년 외(1999).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에 관한 연구: 탈북인 대상의 면접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221-248.
- 2) 김혜은·서봉연·이순형(1999a).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 인간발달연구 6(2).
- 3) _____(1999b).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20(2): 279-297.
- 4) 박영숙 외(1997). "탈북자 면접을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식품섭취실태 탐색".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3): 396-405.
- 5) 이기춘 외(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북한가정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289-315.
- 6) _____(1998a).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북한의 가족·아동·소비·시간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231-250.
- 7) _____(1998b).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의 가정 생활문화. 1998년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 8) 이순형 외(1999). "북한의 아동 양육 실태 및 관련변수". 한국아동학회지 20(4): 43-59.
- 9) 이은영 외(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I): 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15-28.
- 10) 박영숙·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최연실·석드보라(1999).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남한에서 인식한 차이".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1): 64-73.
- 11) Betram(1997). Keine Wende zum Heimchen am Herd. DJI Bericht.
- 12) _____(1998). Jungle Frauen in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 massna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rbeitsbezogene Jugendsozialarbeit. Deutsche Jugendinstitute. V.